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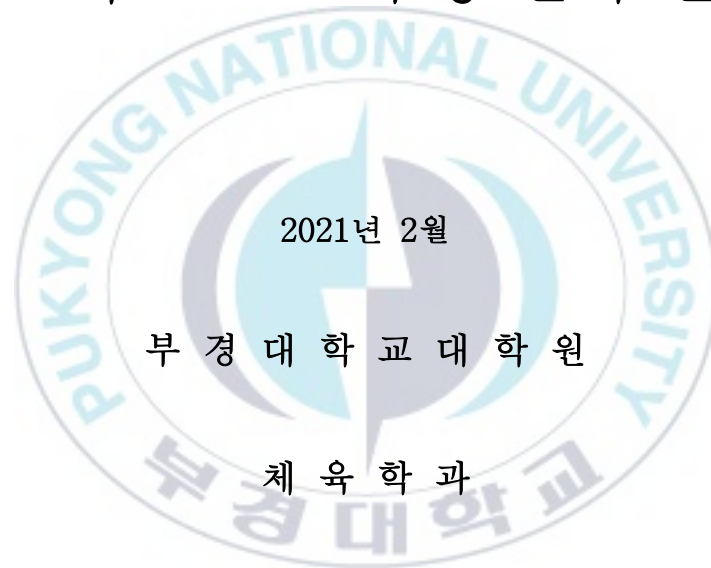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체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유소년 스포츠 참여자의
또래동기분위기, 스포츠 가치,
태도와 스포츠 우정 간의 관계



정 건 영

체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유소년 스포츠 참여자의
또래동기분위기, 스포츠 가치,
태도와 스포츠 우정 간의 관계

지도교수 송 용 관

이 논문을 체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체 육 학 과

정 건 영

정건영의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19일



위 원 장 체육학박사 박 중 철



위 원 체육학박사 송 용 관



위 원 체육학박사 김 대 환



목 차

목차	i
표 목차	iv
그림 목차	v
Abstract	vi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3. 연구가설	7
4. 연구의 제한점	8
5. 용어의 정의	8
II . 이론적 배경	10
1. 성취목표이론	10
가. 개인의 성취목표성향	10
나. 주요타자가 조성하는 동기 분위기	11
다. 동기 분위기와 성취목표성향	13
2. 스포츠 우정	15
가. 스포츠 우정의 개념	15
나. 스포츠 우정의 선행연구	16

III. 연구방법	18
1. 연구방법	18
가. 연구참여자	18
나. 측정 도구	20
다. 분석방법	23
IV. 연구결과	24
1. 연구결과-1	24
가. 기술통계와 신뢰도	24
나. 상관관계	26
다. 확인적 요인분석	27
라. 예측 타당도	32
2. 연구결과-2	36
가. 기술통계와 신뢰도	36
나. 상관관계	39
다. 회귀분석	41
V. 논의	47
VI. 결론 및 제언	53
1. 결론	53
2. 제언	54

참고문헌	56
부록(설문지)	68



표 목차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19
표 2. 스포츠 가치 척도 번역결과	21
표 3. 스포츠 태도 척도 번역결과	22
표 4. 스포츠 가치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24
표 5. 스포츠 태도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25
표 6. 스포츠 가치와 태도의 간의 상관관계	26
표 7. 스포츠 가치 척도의 요인부하량 및 잠재변인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지수	27
표 8. 스포츠 태도 척도의 요인부하량 및 잠재변인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지수	28
표 9. 스포츠 가치 척도와 스포츠 태도 척도의 적합도	31
표 10. 스포츠 가치가 스포츠 태도에 미치는 영향	33
표 11. 스포츠 가치가 스포츠 우정에 미치는 영향	35
표 12. 또래 동기 분위기 척도의 기술 통계량과 신뢰도	37
표 13. 스포츠 우정 척도의 기술 통계량과 신뢰도	38
표 14. 스포츠 가치, 스포츠 태도, 또래 동기 분위기와 스포츠 우정 간의 상관관계	40
표 15. 또래 동기 분위기가 스포츠 가치에 미치는 영향	42
표 16. 또래 동기 분위기가 스포츠 태도에 미치는 영향	44
표 17. 또래 동기 분위기가 스포츠 우정에 미치는 영향	46

그림 목차

그림 1. 스포츠 가치 척도의 확인적 모형	29
그림 2. 스포츠 태도 척도의 확인적 모형	30



**The Relationships between Peer Motivational Climate, Sport
Value, Sport Attitude and Sport Friendship of Youth
Participants.**

Jeong, Geon You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ng-Gwan, Song Ph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Youth Sport Value Questionnaire (YSVQ) and Youth Sport Attitude Questionnaire (YSAQ).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motivational climate, sport value, sport attitude and sport friendship of youth sport participants in sport setting. Three hundred twelve youth sport participants from youth soccer club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completed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First, to test the validity of YSVQ and YSAQ, the factorial structure of the scale was tested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In addition, predictive validity were tested using correlational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s results, the findings supported factorial valid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e K-YSVQ and YSAQ as well as its reliability. Second, th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proposed in this study. The result shows that, task-involving motivational climat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oral value, competence value and status value while ego-involving motivational climate was positively associated only with status value. Task-involving motivational climat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mmitment and convention of sport attitude and negatively with cheating and gamesmanship while ego-involving motivational climat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eating and gamesmanship and negatively with commitment. Lastly, task-involving motivational climat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loyalty, common, play and conflict resolution of sport friendship and negatively with conflict whereas ego-involving motivational climat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loyalty, common and conflict. The finding shows that motivational climate created by peers in youth sport context significantly predicts sport participants' sport value, attitude and friendship.

Key word : Sport value, attitude, Achievement orientation, peer motivational climate, sport friendship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유소년 스포츠 참여자는 같은 스포츠 활동에서도 제각기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의 방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에 의해서 형성된다. 일반적인 가치는 세계 평화, 개인적 구원 또는 정직함에 대한 욕망 같은 것으로 표현되지만, 스포츠 활동에서 가치는 경기에서 승리하고 잘하는 것과 같은 성공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여겨지는 페어플레이, 스포츠퍼슨십, 우정, 그리고 인내가 포함된다(Lee, Whitehead, & Balchin, 2000). 가치는 상황에 따라 행동을 이끄는 보편적인 원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취와 도덕성에 관련된 가치들은 아주 중요하다(Lee, Whitehead, Ntoumanis, & Hatzigeorgiadis, 2008). 특히, 어린 시절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은 좋은 성인으로서의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사회 심리학자 Rokeach(1973)에 따르면, 가치는 “개인이 다른 것보다 더 또는 덜 선호하는 특정한 목표 또는 행동의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가치관은 선택과 결정 사이에서 선호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는 가치가 중요도 순위에 있는 가치체계가 발달한다. 개인의 가치는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개인이 가진 가치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가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태도가 다른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Fishbein과 Ajzen(1975)은 태도를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행동 양식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이라고 정의했다. 태도의 한가지 기능은 특정한 목표와 상황에 관련된 가치에 맞는 더

욱 일반적인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다(Katz, 1960; Rokeach, 1973). 그러므로, 많은 태도가 하나의 가치로부터 나타날 수 있고, 하나의 태도가 하나 이상의 가치로부터 반영될 수가 있다(Lee et al., 2008). 다시 말해서, 개인이 다른 행동을 나타내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닌 가치이다. 이는 개인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치는 자신의 행동과 현실 인식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이다(Allport, 1961, Rokeach, 1973).

가치가 스포츠 환경에서 스포츠 참여자의 태도와 행동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포츠 가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가치와 태도의 모호한 구분 때문이었다(Braithwaite & Scott, 1991). 다시 말해, 개인이 가진 가치와 태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스포츠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신체활동의 참여에 가치는 둔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참여하거나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체육수업이 건강 유지에 중요하지만, 개인의 입시나 진로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소홀히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구분하고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과 결과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치와 태도 구분의 중요성을 인식한 Rokeach(1973)는 5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가치와 태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고, Katz(1960)도 가치와 태도 관계에 있어 중요한 기능적 측면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Lee와 Cockman(1995)의 연구를 기반으로 Lee 등(2000)은 귀납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 스포츠 참여자에게 가장 적절한 가치 요인을 추출하여 청소년 스포츠 가치 척도(YSVQ)를 개발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를 토대로 Lee 등(2008)은 가치와 태도 그리고 성취목표성향이 포함된 청소년 스포츠 가치 척도

-2(YSVQ-2)를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도 스포츠 가치에 관한 개념화 연구가 일부 연구자에 의해서 수행되었다(구창모, 1991; 성창훈, 2005; 정영린, 1996). 특히, 송춘현(2011)은 초등학생 5~6학년 만을 대상으로 Lee 등(2008)의 스포츠 가치 척도 2와 스포츠 태도 척도를 간략 형으로 번안하여 타당화 검증을 시행하였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 척도를 기반으로 한 관련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척도의 보편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송춘현(2011)이 타당화시킨 척도는 그 타당성과 보편성에서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원척도를 개발한 Lee 등(2008)은 11~16세 학생을 중심으로 스포츠 가치와 태도의 인식을 파악했지만, 송춘현(2011) 12~13세 학생만을 한정했다. 둘째, 국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국내 상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해야 함에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구조를 확인하여 척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셋째, 타당화시킨 척도의 준거 및 예측 타당도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과정이 미흡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치와 태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Lee 등(2008)이 개발한 스포츠 가치와 태도 척도가 국내의 어린이에게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스포츠 가치와 태도는 개인의 성취와 목표와도 관련되어 있다. 스포츠 환경에서 성취목표이론은 개인과 사회적 환경 성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이론이다(Nicholls, 1989). 개인 성향은 과제 성향(task orientation)과 자아 성향(ego-orientation)으로 구분된다(Nicholls, 1989). 그리고 주요타자에 의

해서 조성되는 사회적 환경은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task-involving climate)와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ego-involving climate)로 나뉜다(Ames, 1992).

과제 성향을 지닌 사람은 성공의 준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기술 향상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목표 기준을 달성하여 성취감을 느낀다. 반면, 자아 성향을 지닌 사람은 성공의 기준이 타인이 되며, 상대방보다 더 나은 수행과 결과 때문에 성취감과 상대방으로부터 우월감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 Biddle, Wang, Kanvussanu와 Spray(2003)은 과제 성향은 높은 도덕성, 사회성과 기술 숙달을 위해 스포츠에 참가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자아 성향은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능력과 자만이 성공을 가져온다는 믿음과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는 신념을 지닌다고 제시했다.

개인의 가치와 태도에 있어서 동기 분위기는 큰 작용을 한다. 성취목표 성향이 개인이 가지는 동기적 성향이라면, 분위기는 개인이 인식하는 학습 동기 분위기의 인식이다. Ames(1992)는 동기 분위기를 “특정 목표성향을 장려하고 특정 시점에 특정 목표의 관여 상태를 유도하는 상황적 동기 신호 및 기대치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의했다. 주요타자로부터 형성된 동기 분위기도 신체활동 참여자의 스포츠 경험뿐만 아니라, 특히 그들이 능력의 기준을 평가하는 성취성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술의 숙달과 개인의 향상, 노력을 중요시하는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는 심리적 욕구(Reinboth & Duda, 2006), 자기효능감 (Barkoukis et al., 2010), 스트레스(Hogue et al., 2017), 친사회적 행동과 즐거움(Yaaribi & Kavussanu, 2018)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비교와 규범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는 수행력 저하와 불안(Smith et al., 2006), 동기저하(유진, 허정훈, 2001) 스트레스 반응 유발(Hogue et al.,

2017), 반사회적 행동(Ames, 1992)을 유발한다.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에 있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치와 태도는 감독, 코치, 부모, 동료 등과 같은 주요타자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Weiss & Chaumeton, 1992; Weiss & Duncan, 1992; White, 1996). 늦은 아동기의 아이들과 어린 청소년은 유능성에 대한 정보를 동료 비교와 피드백으로 얻지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의 피드백으로 인해 자신의 유능성을 판단한다(Horn & Weiss, 1991). 부모의 지원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지원인 반면(Elashoff & Snow, 1971), 부모의 압력이 과해지면 스포츠에 대한 흥미가 줄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Engl, 2002; Smith & Smoll, 2002). 체육수업에서도 교사의 긍정적인 동기 분위기는 학생의 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학생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동기 분위기는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천승현, 김지현, 유경은, 김승재, 송용관, 2017). 이처럼 주요타자가 스포츠 참여자의 가치와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주요타자가 학생과 신체활동 참가자의 가치와 태도에 중요한 작용을 함에도, 대부분의 연구는 교사, 부모와 지도자와 같은 성인이 조성하는 동기 분위기에 초점을 두었다. 스포츠 현장에서는 동료(친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천승현, 임창하, 유경은, 주우영, 송용관, 2020). Keegan, Spray, Harwood와 Lavalley(2009, 2010)은 7~18세 남녀 스포츠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동 행동, 경쟁 행동, 평가적 의사소통, 이타적 행동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서로의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동료의 긍정적인 동기 분위기(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 조성은 스포츠 참여자의 내적 동기와 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천승현 등, 2020), 내면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력 또한 형성시킨다(김성일, 2014).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관계는 청소년 스포츠에서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험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지표이다(Smith, 2003). 동기 분위기라는 사회적 특성 속에 중요한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개인적 특성인 스포츠 우정이다. 우정(friendship)이란 “친구 간에 심리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며 자발적인 긍정적 관계 형성”을 의미한다(천승현, 송용관, 2011). Newcomb와 Bagwell(1995)은 긍정적인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회적인 접촉이 증가하고, 상호소통을 통해 협력을 하며, 긍정적인 관계로 인해 의견이 맞지 않거나 충돌 시 서로 갈등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발달학적 관점에서도 상호 간의 긍정적인 우정 형성은 도덕성 및 사회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성 함양에도 영향을 미친다(Parker & Asher, 1993). 좋은 친구 관계와 우정은 개인의 자존감, 사회적 적응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높이지만(Hartup & Stevens, 1999),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는 친구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꺼리고,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면서 반사회적 및 부정적인 행동이 야기된다(Berndt, 2002).

선행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신체활동에 있어서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우정이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친구와의 관계와 우정은 개인의 가치와 태도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렇지만, 스포츠 현장에서 동료의 역할이 개인의 가치와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특성인 동료가 조성하는 또래 동기 분위기와 개인적 특성인 스포츠 우정이 개인의 가치와 태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에게 좋은 가치와 태도를 심어지고 길러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스포츠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좋은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요타자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따라

서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개인의 가치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특성인 또래 동기 분위기와 개인 특성인 우정이 어린이의 가치와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두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가치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스포츠 현장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첫째, 스포츠 상황에서 유소년을 대상으로 Lee 등(2008)이 개발한 스포츠 가치 척도와 스포츠 태도 척도를 국내의 동일 연령대의 어린이들에게도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둘째, 개인의 가치와 태도는 사회적 환경과 개인 성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의 또래 동기 분위기와 개인적 특성의 우정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가치와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스포츠 가치, 태도 척도는 타당한 심리 측정 요인 구조를 지닐 것인가?

둘째, 또래 동기 분위기는 스포츠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또래 동기 분위기는 스포츠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또래 동기 분위기는 스포츠 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두었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축구클럽 10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청소년 스포츠 참여자로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축구라는 한 가지 종목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5. 용어의 정의

가. 스포츠 가치

Rokeach(1973)는 가치를 “개인이 다른 것보다 더 또는 덜 선호하는 특정한 목표 또는 행동이라는 신념”으로 정의하다. 따라서, 스포츠 가치는 스포츠 환경에서 스포츠 참여자 또는 선수가 다른 것보다 더 또는 덜 선호하는 특정한 목표 또는 행동이라는 신념으로 정의되었다.

나. 스포츠 태도

Fishbein과 Ajzen(1975)은 태도를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행동 양식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스포츠 태도는 스포츠 환경에서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행동 양식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으로 정의되었다.

다. 또래 동기 분위기

또래 동기 분위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동기적 분위기를 뜻하며,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와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로 구분된다.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의 하위요인은 3가지(향상, 관계성지지, 노력)이며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의 하위요인 2가지(팀 내 경쟁·능력, 팀 내 갈등)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는 남과 비교를 하기보단 자신의 운동기능 향상이나 새로운 기술의 습득에 초점을 두는 훈련 상황을 의미하고,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는 타인과의 비료를 통해 경쟁과 승리를 지향하는 데 초점을 두는 훈련 상황을 의미한다.

라. 스포츠 우정

우정이란 친구 간에 심리적으로 가깝고 서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통해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천승현, 송용관, 2011). 스포츠 우정은 스포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친구 또는 또래 간에 형성된 우정을 의미하며, 자존감 향상과 지원, 의리와 친밀감, 공통점, 교우관계와 즐거운 놀이, 갈등 해결,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취목표이론

가. 개인의 성취목표성향

성취목표성향 이론은 교육학 분야에서 시작되어 많은 스포츠 상황에서까지 적용 및 연구되고 있다(정청희, 김병준, 1999). 개인의 성취수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취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은 자신의 유능성 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성향은 크게 과제 목표성향과 자아 목표성향으로 나뉜다(Nicholls, 1989).

Maehr과 Nicholls(1980)에 따르면, 과제목표성향을 지닌 사람은 비교의 준거가 자기 자신이므로,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수행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한다. 이에 반해 자아 목표성향이 있는 사람은 자신과 비교하기보단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유능성을 판단된다. 즉, 과제목표성향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보이며, 자아목표성향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두 가지 개인적 특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Ames(1984)에 따르면, 과제 성향은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개인적 특성은 과제목표 유형의 개인차와 기질적인 과제목표를 과거 사회와 결과로 독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상황적 특성으로는 코치, 부모, 교사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황적 분위기가 개인의 과제목표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축구경기에 참여하는 한

남성이 경기가 중요한 이유가 개인의 기술 숙달과 건강 증진에 있다면 이 남성은 타인과의 경쟁의식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과제목표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자아 성향은 자신의 행동 결과가 자신이 가진 능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관적인 생각이 지배적이다. 자아 성향 요인은 개인 간 경쟁, 대중의 평가, 규준적 피드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mes, 1984). 예를 들어, 축구를 하는 한 학생이 상대를 이기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그 학생은 자신의 향상에 집중하기보다 타인과의 경쟁에 몰두해 있으므로 자기 목표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Maehr과 Nicholls(1980)의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학자들이 성취목표성향과 운동 수행과의 관계를 규명했다(Maehr & Nicholls, 1980; Dweck, 1986; Nicholls, 1984, 1989; Roberts, 1992). 이양주, 오승현(2012)의 연구에서는 과제목표성향 또는 자아목표성향이 높을 때 스포츠 자신감도 높아지고, 몰입은 과제목표성향이 더 높을 때 잘 나타났다. Duda(1989)는 과제목표성향을 가진 사람은 재미 등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사람은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밝혀내면서 성취 목표성향은 개인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다.

나. 주요타자가 조성하는 동기 분위기

또래 동기 분위기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동기 분위기라는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Ames와 Archer(1988)은 동기 분위기를 학습 환경에서 학습의 목적과 본질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동기 분위기는 주로 지도자, 부모 그리고 동료선수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높은 차원에서는 학교나 기관까지도 포함된다(Ames, Archer, 1998). 동기 분위기는 크게 경쟁 분위기(performance

climate), 숙달 분위기(mastery climate)로 나뉘는데, 경쟁 분위기에서는 사회적 주요타자들이 경기 결과와 같은 과제 및 목표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중요시하고, 숙달 분위기에서는 반대로, 타인 또는 다른 팀과 경쟁하여 승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보다는 개개인의 성장과 기술 향상에 중점을 둔다(Ames, 1992; Morgan & Carpenter, 2002).

동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주요타자들이 단체나 개인의 성적을 타인과 비교하는 높은 성적을 목표로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그것은 경쟁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타인 또는 타 팀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비교시키며 향상과 숙달을 목표로한다면, 숙련 분위기가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양일구와 오상훈(2019)은 지도자가 경쟁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 숙련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각된 유능감에 더욱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은희(2010)의 연구에서도 숙달 분위기가 내적 동기를 향상하고, 연습참여를 더욱 의도한다고 보고하였다. 허정훈과 설정덕(2011)의 연구에서는 운동 재미와 몰입이 경쟁 분위기보다 숙달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행동적 측면에서도 숙달 분위기는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키고, 경쟁 분위기는 반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강명구, 임태희, 장창용, 2018)

이처럼 동기 분위기가 과제목표, 또는 숙달 분위기로 조성되었을 때 스포츠 참여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포츠 환경에서 또래와 동료는 주요타자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에 지도자와 교사라는 주요타자에게만 집중된 연구의 시각 탈피하며 Ntoumanis와 Vazou(2005)는 또래에 의해 형성되는 동기 분위기를 측정하는 척도를 타당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국내에서도 천승현과 송용관(2011)은 또래 집단 동기 분위기 척도를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래 동기 분위기는

기존의 숙달 분위기가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로 경쟁 분위기로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로 재개념화되었다.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 하위 항목으로는 향상, 관계성 지지, 노력이 포함되며,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는 팀 내 경쟁과 팀 내 갈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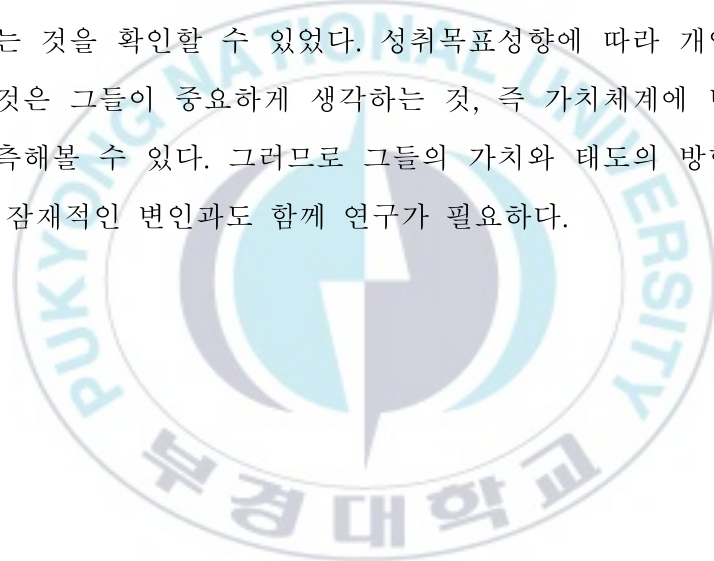
또래 동기 분위기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Jöesaar, Hein과 Hagger(2011)는 또래 동기 분위기가 과제 중심 분위기로 조성되었을 때, 심리적 욕구와 내적 동기가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철, 천승현과 송용관(2011)의 연구에서는 또래 동료에 의해 형성된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는 향후 지속적인 운동참여를 촉진하고,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는 신체활동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최영준(2020)은 숙달 분위기는 단체의 믿음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집단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쟁 분위기는 운동 수행능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다. 동기 분위기와 성취목표성향

동기 분위기와 성취목표성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환경적 특성은 성취목표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Duda & Chi, 1989). Ames(1992)에 의하면, 이러한 성취목표성향은 개인의 성격 특성보다는 상황적 요인(예, 교사의 지지, 수업 분위기 등)과 같은 학습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목표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교실 환경에서 교사가 만드는 수업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환경에서 지도자가 조성하는 훈련 분위기 또한 환경적 특성 중 하나로 작용하여 개인적 특성인 성취목표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함께 동기 분위기와 성취목표성향과의 관계를 규명하

기 위한 오랜 기간 연구되었다. Smith, Smoll과 Cumming(2009)는 9세에서 13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코치에 의해 형성된 숙달 분위기는 과제목표성향이 향상되었고, 반대로 자아 분위기는 자아 목표성향이 향상되는 것을 밝혔다. 유진과 허정훈(2001)의 연구에서는 체육 수업상황에서 학생의 과제 목표성향이 내적 동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중길(2009)은 대학 운동선수가 지닌 과제목표성향과 숙련 분위기는 스포츠퍼센십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동기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개인의 성취목표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행동 방향 또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가치체계에 변화가 있었다고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치와 태도의 방향을 예측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변인과의 관계도 함께 연구가 필요하다.



2. 스포츠 우정

가. 스포츠 우정의 개념

스포츠는 보통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동료, 또는 지도자와 같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는 신체적 활동이다. 아동기, 청소년기에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중요한 부분이며, 스포츠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관계는 지속적인 우정으로 이어진다(천승현, 송용관, 2011). 한 단체 안에서의 또래 수용, 또는 지위나 인기는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상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Weiss & Smith, 1999). 개인의 자기 인식(self-perception)과 노력 등과 같은 동기가 친구 관계 형성에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Weiss & Ferrer-Caja, 2002). 친구 관계가 좋을수록 함께 스포츠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가 높아지고, 친구 관계가 불편하면 스포츠 참여를 꺼리게 된다. 따라서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스포츠 참여에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Weiss & Petlichkoff, 1989).

Hartup은 우정의 세 가지 요소가 어린 시절 사회 심리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Bukowski, Newcomb, & Hartup, 1996; Hartup, 1995, 1996). 그 세 가지는: 1)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2) 친구가 누구인지, (3) 친구와의 친밀도가 좋은지(친구 관계의 질) 이다. 친구 유무에 따르면, 친구가 있다면 서로 간에 더 많은 사회적 소통, 협력, 긍정적인 정서 그리고 갈등 해결을 보였다(Newcomb & Bagwell, 1995, 1996).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친구냐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서로 가치 있는 특징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Hartup, 1995). 마지막으로, 친구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학교와 사회의 유능성, 자아존중감, 관계 만족을

경험하고 더 적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Berndt, 1996; Cauce, 1986; Parker & Asher,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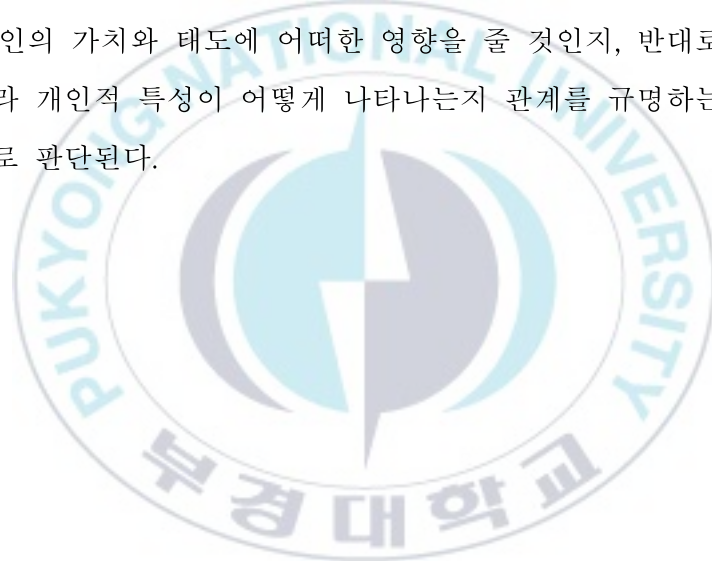
이러한 중요성과 함께 Parker와 Asher(1993)는 초등학교 수업상황에서 또래 집단에 의해 형성되는 상호 간의 수용 만족, 외로움, 불만, 친밀감과 같은 사회관계를 조사하여 우정 척도(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 FQQ)를 개발하였다. 이어서 Weiss, Smith와 Theebom(1996)은 스포츠 영역에서 참여자들의 친한 친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뷰 연구를 진행했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동반적 관계(companionship), 자존감 향상(self-esteem enhancement), 친근한 행동(prosocial behavior),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갈등 해결(conflict resolution) 등 12개의 긍정적인 요소를 도출하였고, 끌리지 않는 개인적 특성(unattractive personal qualities), 배신(betrayal) 등 4개의 부정적인 요소를 도출했다.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Weiss와 Smith(1999)는 청소년 스포츠 환경에서 참여자의 우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스포츠 우정 척도(Sport Friendship Quality Scale; SFQS)를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도 천승현과 송용관(2011)은 Weiss와 Smith(1999)의 스포츠 우정 척도를 국내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나. 스포츠 우정의 선행연구

스포츠 우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천은영(2015)은 팀 분위기와 청소년의 스포츠 우정 그리고 비행 행동의 관계에 관해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청소년 사이에 스포츠 우정이 높을수록 폭력 행동, 비행 행동이 낮아지고, 갈등이 높아질수록 비행 행동이 높아지는 것을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손승범, 박인혜, 김옥현(2019)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여중생이 가지는 스포츠 우정, 스포츠 열정, 스포츠 자신감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으로 이어진 참여자들의 돈독한 우정은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자신감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친구 또는 동료 관계가 좋을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좋지 않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적 변화는 개인의 가치체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잠재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의 가치와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반대로 서로 다른 가치에 따라 개인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가.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축구클럽 10곳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비확률표집 방법의 하나인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연구를 위해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결과 미회수 8부, 무응답 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7부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유소년 축구클럽에 방문하여 먼저 감독님과 코치님의 동의를 구하고, 비밀 보장에 대한 설명,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참여자를 성별로 나누어봤을 때, 남자 참여자는 300명으로 9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 참여자는 7명으로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은 초등학생 참여자는 227명으로 72.8%를 차지하고, 중학생 참여자는 80명으로 25.6%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1> 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빈도(%)	계(%)
성별	남	300(96.2)	312(100)
	여	7(2.2)	
	무응답	5(1.6)	
학년	초등학생	227(72.8)	312(100)
	중학생	80(25.6)	
	무응답	5(1.6)	
나이	10세	31(9.9)	312(100)
	11세	74(23.7)	
	12세	67(21.5)	
	13세	52(16.7)	
	14세	45(14.4)	
	15세	26(8.3)	
	16세	12(3.8)	
	무응답	5(1.6)	

나. 측정 도구

(1) 스포츠 가치, 태도 척도

스포츠 상황에서 청소년 스포츠 참여자의 스포츠 가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Lee 등(2008)이 개발한 청소년 스포츠 가치 설문지2(YSVQ-2)에서 성취목표성향 요인을 제외한 스포츠 가치, 태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요인으로는 스포츠 가치로는 ‘도덕성’, ‘유능성’, ‘지위’ 3요인 9문항, 스포츠 태도에서는 ‘몰입’, ‘규칙준수’, ‘부정행위’, ‘스포츠맨십’ 4요인 12문항으로, 5점 리커트 반응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김병준과 오수학(2004)은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정 도구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번안의 정확성(accuracy)을 가장 강조하였다. 서구에서 개발된 검사 도구의 언어 유형, 의미의 유사성,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국내의 팀 스포츠 상황에 적합하도록 번안하였다.

한국어 번역과정에서는 스포츠 심리학 전공의 본 연구자, 이중언어 사용자인 스포츠 심리학 전공자 1인과 함께 참여하였고, 또 한 명의 이중언어자인 스포츠 심리학 전공자 2인과 함께, 역 번역을 진행하였다.

표 2. 스포츠 가치 척도 번역결과

요인 및 문항	원문	번역결과
도덕성 가치1	I try to be fair.	나는 정정당당하게 경기와 연습에 임한다.
도덕성 가치2	I show good sportsmanship.	나는 좋은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있다.
도덕성 가치3	I help other people when they need it.	나는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유능성 가치1	I set my own targets.	나는 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능성 가치2	I use my skills well.	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유능성 가치3	I become a better player.	나는 더 나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한다.
지위 가치1	I am a leader in the group.	나는 팀의 리더이다.
지위 가치2	I show that I am better than others.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뛰어나다.
지위 가치3	I look good.	나는 인기가 있다.

표 3. 스포츠 태도 척도 번역결과

요인 및 문항	원문	번역결과
몰입 1	I go to every practice.	나는 매일 열심히 연습한다.
몰입 2	I always try my hardest.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
몰입 3	I don't give up after mistakes.	나는 실수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규칙 준수1	I shake hands with the oppositions -win or lose.	나는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편과 악수한다.
규칙 준수2	I congratulate the opposition for a good play or performance.	나는 상대편의 좋은 플레이를 축하해준다.
규칙 준수3	I congratulate the opposition after I've lost.	나는 패배한 후에도 상대편을 축하해준다.
부정 행위1	I would cheat if I thought it would help me win.	나는 이길 수 있다면 부정행위를 한다.
부정 행위2	I cheat if I can get away with it.	나는 들키지 않게 부정행위를 한다.
부정 행위3	Sometimes I have to cheat.	나는 가끔 부정행위를 한다.
게임스맨십1	It's a good idea to upset your opponents.	상대방 선수를 화나게 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스맨십2	I sometimes try to wind up the opposition.	나는 가끔 상대방을 박살 내려고 한다.
게임스맨십3	If I don't want another person to do well I put them off a bit.	다른 친구가 잘하는 것이 싫을 때 나는 그 친구를 방해한다.

(2) 또래 동기 분위기

또래 동기 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해 Ntoumanis와 Vazou(2005)가 개발하고 천승현과 송용관(2011)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형 또래 동기 분위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요인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로는 ‘향상’, ‘관계성지지’, ‘노력’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로는 ‘팀 내 경쟁·능력’, ‘팀 내 갈등’의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응답 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Likert Scale을 사용하였다. 또래 동기 분위기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chi^2=486.326$, $DF=179$ CFI=.921, TLI=.898, IFI=.922, NFI=.882, RMSEA=.074으로 수용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스포츠 우정

스포츠 상황에서 친구 또는 또래와 형성된 우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천승현과 송용관(2011)이 번안한 Weiss와 Smith(1999)가 개발한 스포츠 우정 척도(SFQS)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요인으로는 ‘자존감 향상과 지원’, ‘의리와 친밀도’, 공통점, ‘교우관계와 즐거운 놀이’, ‘갈등 해결’, ‘갈등’ 6가지 요인,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응답 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Likert Scale을 사용하였다. 스포츠 우정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444.105$, $DF=194$ CFI=.957, TLI=.949, IFI=.957, NFI=.926, RMSEA=.064로 수용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PSS를 통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과 회귀분석을 하였고, AMOS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결과-1 : 스포츠 가치, 태도 척도의 타당화

가. 기술통계와 신뢰도

조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태도 도구의 문항 분석하였다. 각 조사 문항에 대한 자료의 기술통계(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는 <표 4>와 <표 5>와 같다.

스포츠 가치 척도에서 각 문항의 평균은 2.86~4.46까지 나타났으며, 표준 편차는 0.99~1.48까지 분포되었다. 스포츠 태도에서 각 문항의 평균은 1.73~4.33으로 나타났고, 표준 편차는 0.96~1.44로 확인되었다.

표 4. 스포츠 가치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요인	문항	평균(표준 편차)	왜도	첨도	Cronbach's α
도덕성	도덕성1	4.37(.99)	-2.09	5.17	.842
	도덕성2	4.13(1.12)	-1.46	2.40	
	도덕성3	4.18(1.22)	-1.83	3.34	
유능성	유능성1	4.38(1.05)	-2.05	4.58	.832
	유능성2	3.88(1.22)	-.97	.38	
	유능성3	4.46(.99)	-2.28	6.00	
지위	지위1	2.86(1.48)	.07	-1.21	.856
	지위2	3.19(1.36)	-.20	-.94	
	지위3	3.30(1.36)	-.38	-.69	

스포츠 가치의 신뢰도 수준은 ‘도덕적 가치’ .842, ‘유능성 가치’ .832, ‘지위 가치’ .856으로 나타났고, 스포츠 태도에서는 ‘몰입’ .838, ‘규칙준수’ .891, ‘부정 행위’ .904, ‘게임스맨십’ .885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5. 스포츠 태도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Cronbach's α
몰입	몰입1	4.04(1.18)	-1.20	1.01	.838
	몰입2	4.33(.96)	-1.91	4.80	
	몰입3	4.28(1.06)	-1.99	4.67	
규칙준수	규칙준수1	3.84(1.30)	-.96	.12	.891
	규칙준수2	3.80(1.28)	-.90	.05	
	규칙준수3	3.69(1.36)	-.80	-.22	
부정 행위	부정 행위1	1.87(1.34)	1.26	.42	.904
	부정 행위2	1.75(1.24)	1.46	1.07	
	부정 행위3	1.94(1.32)	1.08	.03	
게임스맨십	게임스맨십1	1.93(1.33)	1.12	.06	.885
	게임스맨십2	2.07(1.44)	.93	-.46	
	게임스맨십3	1.73(1.23)	1.51	1.29	

나. 상관관계 검증(준거 타당도)

<표 6>에 제시한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태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도덕성 가치는 유능성 가치, 지위 가치, 몰입 그리고 규칙준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또한, 유능성 가치는 지위 가치, 몰입, 규칙준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p<.01$), 지위 가치는 몰입, 규칙준수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게임스맨십 스포츠 태도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스포츠 태도의 하위변인인 몰입은 규칙준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p<.01$), 부정행위 또한, 게임스맨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표 6.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태도 간의 상관관계

요인	도덕성 가치	유능성 가치	지위 가치	몰입	규칙 준수	부정 행위	게임스 맨십
도덕성가치	1						
유능성가치	.677**	1					
지위가치	.462**	.546**	1				
몰입	.686**	.737**	.488**	1			
규칙준수	.567**	.541**	.522**	.604**	1		
부정행위	.019	.063	.284**	.043	.110	1	
게임스맨십	.041	.092	.248**	.049	.101	.707**	1

* $p<.05$. ** $p<.01$

다. 확인적 요인분석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스포츠 가치 척도와 스포츠 태도 척도의 집중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표 7>과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도덕성 가치의 요인부하량은 .745~.882, 유능성 가치의 요인부하량은 .781~.824, 지위 가치의 요인부하량은 .772~.920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스포츠 가치에서 도덕적 가치는 .651, 유능성 가치는 .637, 지위 가치는 .681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신뢰도(C.R.)는 스포츠 가치의 도덕적 가치는 .848, 유능성 가치는 .840, 지위 가치는 .864로 나타났다(표 7).

표 7. 스포츠 가치 척도의 요인부하량 및 잠재변인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지수

요인 및 문항	SRW	AVE	C.R.
도덕성 가치1	.787	.651	.848
도덕성 가치2	.882		
도덕성 가치3	.745		
유능성 가치1	.789	.637	.840
유능성 가치2	.781		
유능성 가치3	.824		
지위 가치1	.775	.681	.864
지위 가치2	.920		
지위 가치3	.772		

스포츠 태도 척도에서 몰입의 요인부하량은 .765~.887, 규칙준수의 요인부하량은 .748~.905, 부정행위의 요인부하량은 .840~.930, 게임스맨십의 요인부하량은 .774~.927로 나타났다.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스포츠 태도에서의 몰입은 .653, 규칙준수는 .716, 부정행위는 .765, 게임스맨십은 .722로 나타났다. 스포츠 태도의 몰입은 .849, 규칙준수는 .883, 부정행위는 .907, 게임스맨십은 .886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스포츠 태도 척도의 요인부하량 및 잠재변인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지수

요인 및 문항	SRW	AVE	C.R.
몰입1	.765	.653	.849
몰입2	.887		
몰입3	.767		
규칙 준수1	.748	.716	.883
규칙 준수2	.905		
규칙 준수3	.878		
부정 행위1	.851	.765	.907
부정 행위2	.930		
부정 행위3	.840		
게임스맨십1	.841	.722	.886
게임스맨십2	.774		
게임스맨십3	.927		

일반적으로 분산추출지수의 값은 .5이상이면 분산의 크기가 의미 있다고 판단되고, 개념 신뢰도의 경우에는 .7이상으로 나타나면 관측변수들의 내적 일치도가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Fornell & Lacker, 1981; 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스포츠 가치 척도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표 9>, $\chi^2=91.422$, $DF=24$ CFI=.958, TLI=.936, IFI=.958, NFI=.944, RMSEA=.095로 RMSEA를 제외한 모든 수치가 수용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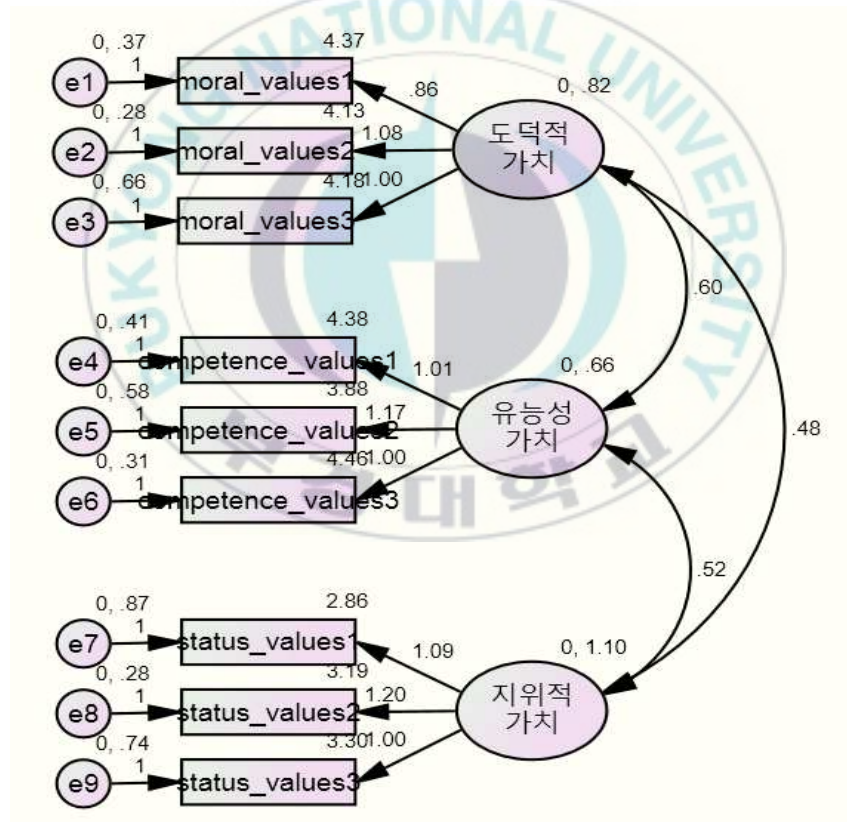


그림 1. 스포츠 가치 척도의 확인적 모형

또한, 스포츠 태도 척도에서도 <표 9> $\chi^2=120.391$, $DF=48$, $CFI=.971$, $TLI=.960$, $IFI=.971$, $NFI=.953$, $RMSEA=.070$ 로 모든 수치가 수용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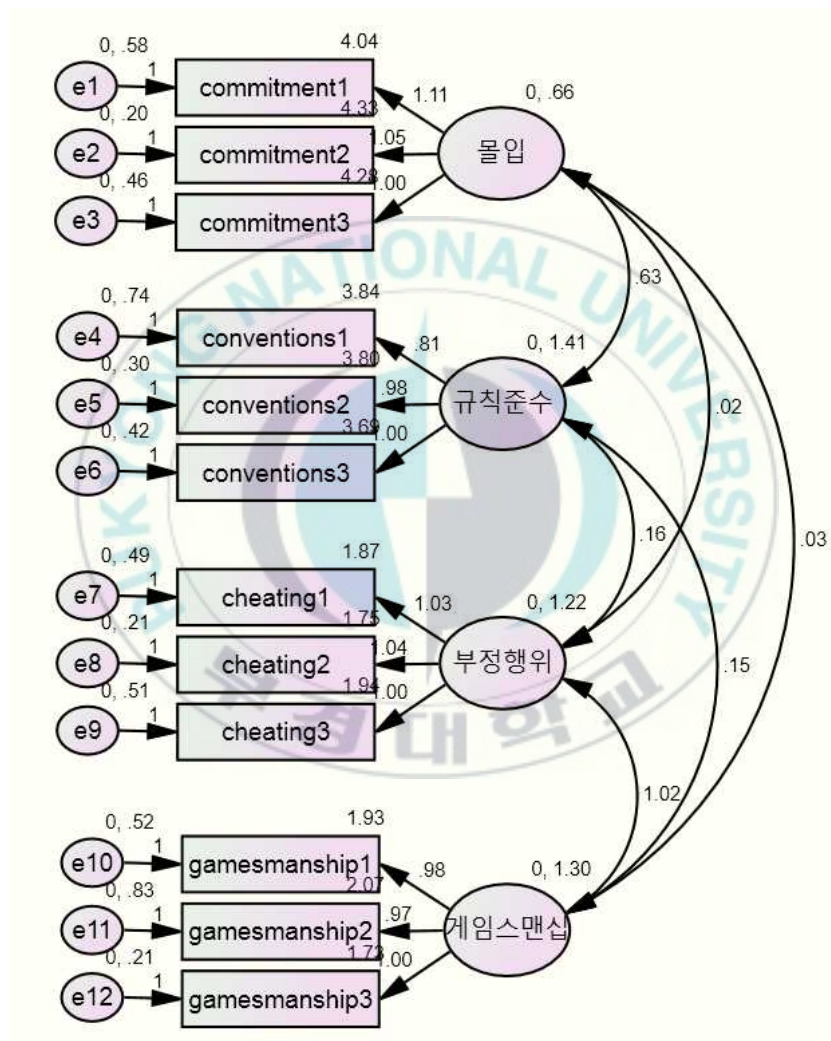


그림 2. 스포츠 태도 척도의 확인적 모형

표 9. 스포츠 가치 척도와 스포츠 태도 척도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IFI	NFI	RMSEA
스포츠 가치 척도	91.422	24	.958	.936	.958	.944	.095
스포츠 태도 척도	120.391	48	.971	.960	.971	.953	.070
수용기준			.90이상	.90이상	.90이상	.90이상	.08이하



라. 예측 타당도

예측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포츠 가치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스포츠 태도와 스포츠 우정을 각각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0>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스포츠 태도의 하위변인인 몰입에 대한 스포츠 가치의 설명력은 60.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덕성 가치가 몰입($\beta=.318,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유능성 가치도 몰입($\beta=.464, p<.001$)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칙준수에 대한 스포츠 가치의 설명력은 41.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가치($\beta=.391, p<.001$)와 유능성 가치($\beta=.212, p<.01$)가 규칙준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 뿐만 아니라, 지위 가치도 규칙준수($\beta=.266,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스포츠 가치의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오직 지위 가치만 부정행위($\beta=.356, p<.001$)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스맨십에 대한 스포츠 가치의 설명력은 5.9%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지위 가치가 게임스맨십($\beta=.285,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스포츠 가치가 스포츠 태도에 미치는 영향(예측 타당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SE	베타	t	수정된R ²	F-value
상수	몰입	.718	.163		4.394***	.608	161.811***
도덕성		.318	.047	.331	6.795***		
유능성		.464	.051	.470	9.103***		
지위		.060	.032	.079	1.844		
Durbin-Watson=1.794							
상수	규칙 준수	.395	.252		1.571	.416	74.727***
도덕성		.391	.072	.323	5.421***		
유능성		.212	.078	.171	2.706**		
지위		.266	.050	.279	5.340***		
Durbin-Watson=1.686							
상수	부정 행위	1.650	.318		5.183***	.090	11.253***
도덕성		-.132	.091	-.107	-1.444		
유능성		-.083	.099	-.066	-.840		
지위		.356	.063	.370	5.661***		
Durbin-Watson=1.352							
상수	게임스 맨십	1.524	.328		4.654***	0.059	7.499***
도덕성		-.111	.094	-.089	-1.180		
유능성		-.009	.102	-.007	-.086		
지위		.285	.065	.292	4.405***		
Durbin-Watson=1.635							

<표 11>은 스포츠 가치가 스포츠 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스포츠 가치의 설명력은 27.2%로 나타났다. 오직 도덕성 가치가 자아존중감($\beta=.582$,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리/친밀감에 대한 스포츠 가치에 설명력은 22.9%로 나타났다. 도덕성 가치가 의리/친밀감($\beta=.532$,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위 가치가 의리/친밀감($\beta=.335$, $p<.001$)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공통점에 대한 스포츠 가치의 설명력은 20.3%로 나타났고, 도덕성 가치가 공통점($\beta=.408$,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지위 가치도 공통점($\beta=.385$, $p<.001$)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운 놀이에 대한 스포츠 가치에 대한 설명력은 12.9%로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갈등 해결에 대한 스포츠 가치의 설명력은 35.2%로 나타났고, 도덕성 가치가 갈등 해결($\beta=.678$,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갈등에 대한 스포츠 가치의 설명력은 4.4%로, 오직 지위 가치만 갈등($\beta=.436$,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스포츠 가치가 스포츠 우정에 미치는 영향(예측 타당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SE	베타	t	수정된 R ²	F-value
상수	자아 존중감	2.038	.346		5.898***	.272	39.659***
도덕성		.582	.099	.391	5.878***		
유능성		.080	.108	.052	.739		
지위		.192	.068	.164	2.815**		
Durbin-Watson=1.643							
상수	의리/ 친밀감	2.004	.382		5.249***	.229	31.730***
도덕성		.532	.109	.333	4.865***		
유능성		-.065	.119	-.040	-.549		
지위		.335	.076	.267	4.437***		
Durbin-Watson=1.423							
상수	공통점	2.528	.382		6.622***	.203	27.404***
도덕성		.408	.109	.259	3.726***		
유능성		-.069	.119	-.043	-.584		
지위		.385	.076	.331	5.092***		
Durbin-Watson=1.580							
상수	즐거움 놀이	3.661	.348		10.514***	.129	16.369***
도덕성		.253	.100	.184	2.536*		
유능성		.189	.109	.134	1.741		
지위		.129	.069	.120	1.874		
Durbin-Watson=1.597							
상수	갈등 해결	.973	.366		2.659**	.352	57.274***
도덕성		.678	.105	.405	6.464***		
유능성		.182	.114	.106	1.593		
지위		.243	.072	.185	3.352**		
Durbin-Watson=1.648							
상수	갈등	2.365	.550		4.303***	.044	5.749
도덕성		.035	.157	.017	.225		
유능성		-.255	.171	-.120	-1.491		
지위		.436	.109	.268	4.009***		
Durbin-Watson=1.536							

2. 연구결과-2 : 또래 동기 분위기, 스포츠 가치, 태도와 스포츠 우정 간의 관계 검증

가. 기술 통계량과 신뢰도

조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또래 동기 분위기 스포츠 우정 도구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각 조사 문항에 대한 자료의 기술통계(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는 <표 12>와 <표 13>과 같다.

또래 동기 분위기의 각 문항의 평균은 2.90~5.99로 나타났고, 표준 편차는 1.35~2.19로 분포되어 있었다. 스포츠 우정의 각 문항의 평균은 2.63~6.03으로 나타났고, 표준 편차는 1.39~2.19로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도 수준을 측정했을 때, 또래 동기 분위기의 '향상' .876, '관계성지지' .808, '노력' .865, '팀 내 경쟁' .829, '팀 내 갈등' .894로 나타났고, 스포츠 우정은 '자기존중감' .897, '의리와 친밀도' .899, '공통점' .883, '즐거운 놀이' .906, '갈등 해결' .880, '갈등' .958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12. 또래 동기 분위기 척도의 기술통계량과 신뢰도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Cronbach's α
향상	향상	5.64(1.43)	-.83	.13	.876
	향상	5.08(1.73)	-.63	-.29	
	향상	5.31(1.60)	-.61	-.38	
	향상	5.28(1.77)	-.82	-.24	
관계성지지	관계성지지	5.70(1.62)	-1.21	.99	.808
	관계성지지	5.82(1.41)	-1.10	.65	
	관계성지지	5.59(1.60)	-1.22	1.14	
노력	노력	5.96(1.36)	-1.49	2.21	.865
	노력	5.96(1.38)	-1.34	1.32	
	노력	5.99(1.48)	-1.76	3.18	
	노력	5.96(1.35)	-1.39	2.12	
	노력	5.68(1.50)	-1.10	.71	
팀 내 경쟁	팀 내 경쟁	4.38(2.14)	-.17	-1.33	.829
	팀 내 경쟁	3.84(2.16)	.20	-1.31	
	팀 내 경쟁	4.09(2.19)	-.02	-1.35	
	팀 내 경쟁	5.02(1.84)	-.59	-.61	
	팀 내 경쟁	4.56(1.96)	-.32	-.85	
팀 내 갈등	팀 내 갈등	3.16(2.04)	.58	-.83	.894
	팀 내 갈등	3.18(2.04)	.49	-.93	
	팀 내 갈등	3.59(2.10)	.25	-1.10	
	팀 내 갈등	2.90(2.04)	.75	-.66	

표 13. 스포츠 우정 척도의 기술 통계량과 신뢰도

요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Cronbach's α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1	5.45(1.65)	-.90	.15	.897
	자아존중감2	5.64(1.54)	-1.07	.83	
	자아존중감3	5.26(1.71)	-.84	.11	
	자아존중감4	5.39(1.71)	-1.03	.67	
의리/친밀감	의리/친밀감1	5.09(1.88)	-.64	-.66	.899
	의리/친밀감2	5.40(1.64)	-.82	.05	
	의리/친밀감3	5.21(1.64)	-.55	-.53	
	의리/친밀감4	4.39(2.17)	-.27	-1.26	
공통점	공통점1	5.46(1.65)	-.90	.18	.883
	공통점2	5.30(1.72)	-.71	-.27	
	공통점3	5.17(1.78)	-.60	-.63	
	공통점4	4.69(1.94)	-.42	-.85	
즐거운놀이	즐거운놀이1	6.00(1.45)	-1.57	2.06	.906
	즐거운놀이2	6.01(1.48)	-1.53	1.75	
	즐거운놀이3	6.03(1.39)	-1.46	1.52	
	즐거운놀이4	5.70(1.70)	-1.24	.58	
갈등해결	갈등해결1	5.63(1.73)	-1.37	1.38	.880
	갈등해결2	5.38(1.74)	-1.21	1.22	
	갈등해결3	5.09(1.95)	-.95	.16	
갈등	갈등1	2.87(2.07)	.68	-.74	.958
	갈등2	2.63(2.06)	.95	-.34	
	갈등3	2.88(2.19)	.76	-.72	

나. 스포츠 가치, 스포츠 태도, 또래 동기 분위기와 스포츠 우정 과의 상관관계

<표13>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와 스포츠 우정의 하위변인인 자존감 향상과 지원, 의리와 친밀도, 교우관계와 즐거운 놀이, 갈등 해결과 스포츠 가치의 하위변인인 도덕성 가치, 유능성 가치, 지위 가치, 그리고 스포츠 태도의 하위변인인 몰입과 규칙준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p<.01$)을 보였다.

또한,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와 스포츠 우정 하위변인 중 자존감 향상과 지원($p<.05$), 의리와 친밀도, 공통점과 갈등, 그리고 스포츠 가치의 하위변인인 지위, 스포츠 태도의 하위변인인 규칙준수, 부정행위, 스포츠맨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스포츠 우정의 하위변인인 자존감 향상과 지원은 의리와 친밀도, 공통점, 교우관계와 즐거운 놀이, 갈등 해결, 스포츠 가치의 하위변인인 도덕성 가치, 유능성 가치, 그리고 스포츠 태도의 하위변인인 몰입과 규칙준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의리와 친밀도는 공통점, 교우관계 즐거운 놀이, 갈등 해결, 갈등($p<.05$), 그리고 도덕성 가치, 유능성 가치, 지위 가치, 몰입, 규칙준수, 부정행위($p<.05$), 게임스맨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p<.01$).

공통점은 교우관계와 즐거운 놀이, 갈등 해결, 도덕성 가치, 유능성 가치, 지위 가치, 그리고 몰입, 규칙준수, 부정행위, 게임스맨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교우관계와 즐거운 놀이는 갈등 해결, 도덕성 가치, 유능성 가치, 지위 가치, 그리고 몰입, 규칙준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갈등 해결은 도덕성 가치, 유능성 가치, 지위 가치, 그리고 몰입, 규칙준수, 부정행위, 게임스맨십($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끝

으로 갈등은 지위, 규칙준수($p<.05$), 부정행위 그리고 게임스맨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표 14. 스포츠 가치, 스포츠 태도, 또래 동기 분위기와 스포츠 우정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과제중심 동기분위기 (1)	1														
자아중심 동기분위기 (2)	.036	1													
자존감 향상과지원 (3)	.781 **	.113 *	1												
의리와 친밀도(4)	.701 **	.211 **	.784 **	1											
공통점(5)	.631 **	.232 **	.699 **	.749 **	1										
교우관계와 즐거움놀이 (6)	.587 **	.077 **	.616 **	.637 **	.683 **	1									
갈등해결 (7)	.563 **	.030 **	.584 **	.585 **	.548 **	.522 **	1								
갈등(8)	-.05 6	.444 **	-.00 8	.125 *	.109 **	-.05 6	.078 **	1							
도덕성(9)	.478 **	.055 **	.502 **	.429 **	.374 **	.330 **	.562 **	.060 **	1						
유능성(10)	.427 **	.079 **	.406 **	.331 **	.302 **	.324 **	.481 **	.038 **	.677 **	1					
지위(11)	.394 **	.290 **	.373 **	.399 **	.407 **	.278 **	.430 **	.211 **	.462 **	.546 **	1				
몰입(12)	.456 **	-.01 7	.405 **	.347 **	.283 **	.280 **	.520 **	.051 **	.686 **	.737 **	.488 **	1			
규칙준수 (13)	.465 **	.155 **	.448 **	.474 **	.391 **	.228 **	.569 **	.113 **	.567 **	.541 **	.522 **	.604 **	1		
부정행위 (14)	-.07 4	.363 **	-.00 4	.140 *	.152 **	.019 **	.174 **	.576 **	.019 **	.063 **	.284 **	.043 **	.110 **	1	
게임스맨십 (15)	-.02 1	.386 **	.037 **	.155 **	.151 **	-.02 0	.121 **	.542 **	.041 **	.092 **	.248 **	.049 **	.101 **	.707 **	1

* $p<.05$. ** $p<.01$

다. 회귀분석

(1) 또래 동기 분위기가 스포츠 가치에 미치는 영향

또래 동기 분위기가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태도 그리고 스포츠 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덕성 가치에 대한 또래 동기 분위기의 설명력은 22.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가 도덕성 가치($\beta=.401$, $p<.001$)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능성 가치에 대한 또래 동기 분위기의 설명력은 18.1%로 나타났고,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가 유능성 가치($\beta=.348$,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지위 가치에 대한 또래 동기 분위기의 설명력은 23.1%로 나타났고,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beta=.412$, $p<.001$)와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beta=.235$, $p<.001$) 모두가 지위 가치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또래 동기 분위기가 스포츠 가치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SE	베타	t	수정된R ²	F-value
상수		1.866	.271		6.877***		
과제중심 동기분위기	도덕성 가치	.401	.042	.477	9.526***	.225	45.942***
자아중심 동기분위기		.024	.033	.036	.722		
Durbin-Watson=1.984							
상수		2.112	.272		7.764***		
과제중심 동기분위기	유능성 가치	.348	.042	.425	8.261***	.181	35.284***
자아중심 동기분위기		.041	.034	.063	1.225		
Durbin-Watson=1.911							
상수		-.121	.346		-.350		
과제중심 동기분위기	지위가치	.412	.054	.384	7.670***	.231	46.204***
자아중심 동기분위기		.235	.043	.276	5.513***		
Durbin-Watson=1.934							

(2) 또래 동기 분위기가 스포츠 태도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태도의 하위변인인 몰입에 대한 또래 동기 분위기의 설명력은 20.4%로 나타났고,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가 몰입($\beta=.370$,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규칙준수에 대한 또래 동기 분위기의 설명력은 23.1%로 나타났다.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beta=.471$, $p<.001$)와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beta=.112$, $p<.01$) 모두가 규칙준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정행위에 대한 또래 동기 분위기의 설명력은 13.5%로 나타났고, 오직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가 부정행위($\beta=.302$,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임스맨십에 대한 또래 동기 분위기의 설명력은 14.5%로 확인되었고, 마찬가지로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가 게임스맨십($\beta=.323$,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6. 또래 동기 분위기가 스포츠 태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SE	베타	t	수정된R ²	F-Value
상수		2.211	.265		8.360***		
과제중심 동기분위기	몰입	.370	.041	.457	9.014***	.204	40.692***
자아중심 동기분위기		-.022	.033	-.035	-.683		
Durbin-Watson=2.024							
상수		.676	.329		2.057*		
과제중심 동기분위기	규칙준수	.471	.051	.460	9.238***	.231	47.491***
자아중심 동기분위기		.112	.041	.138	2.769**		
Durbin-Watson=1.828							
상수		1.194	.353		3.383**		
과제중심 동기분위기	부정행위	-.090	.055	-.087	-1.651	.135	25.109***
자아 중심 동기분위기		.302	.043	.367	6.947***		
Durbin-Watson=1.378							
상수		.869	.355		2.446*		
과제중심 동기분위기	게임스 맨십	-.037	.055	-.035	-.663	.145	27.245***
자아 중심 동기분위기		.323	.044	.387	7.371***		
Durbin-Watson=1.608							

(3) 또래 동기 분위기가 스포츠 우정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스포츠 우정의 하위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또래 동기 분위기의 설명력은 61.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구체적으로,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beta=.978$, $p<.001$)와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beta=.084$, $p<.05$)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의리/친밀감에 대한 또래 동기 분위기의 설명력은, 52.6%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beta=.936$, $p<.001$)와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beta=.198$, $p<.001$)는 의리/친밀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점에 대한 또래 동기 분위기의 설명력은 43.7%로 나타났고,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beta=.826$, $p<.001$)과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beta=.220$, $p<.001$)가 공통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운 놀이에 대한 또래 동기 분위기의 설명력은 34.4%로 나타났으며, 오직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가 즐거운 놀이($\beta=.677$, $p<.001$)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갈등 해결에 대한 또래 동기 분위기의 설명력은 31.3%로 나타났고,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가 갈등 해결($\beta=.785$,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갈등에 대한 또래 동기 분위기의 설명력은 19.7로 나타났으며,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가 갈등($\beta=.619$,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또래 동기 분위기가 스포츠 우정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SE	베타	t	수정된R ²	F-Value
상수		-.429	.286		-1.501		
과제중심 동기분위기	자아 존중감	.978	.044	.077	22.076***	.615	248.759***
자아중심 동기분위기		.084	.035	.084	2.384*		
Durbin-Watson=1.753							
상수		-1.045	.341		-3.063**		
과제중심 동기분위기	의리/ 친밀감	.936	.053	.695	17.695***	.526	170.889***
자아중심 동기분위기		.198	.042	.185	4.706***		
Durbin-Watson=1.625							
상수		-.372	.365		-1.019		
과제중심 동기분위기	공통점	.826	.057	.623	14.616***	.437	121.527***
자아중심 동기분위기		.220	.045	.208	4.890***		
Durbin-Watson=1.748							
상수		1.900	.344		5.526***		
과제중심 동기분위기	즐거움 놀이	.677	.053	.585	12.705***	.344	82.105***
자아중심 동기분위기		.051	.042	.056	1.209		
Durbin-Watson=1.732							
상수		.820	.429		1.911		
과제중심 동기분위기	갈등 해결	.795	.066	.563	11.953***	.313	71.640***
자아중심 동기분위기		.011	.053	.010	.206		
Durbin-Watson=1.734							
상수		1.118	.573		1.954		
과제중심 동기분위기	갈등	-.125	.089	-.072	-1.413	.197	39.048***
자아중심 동기분위기		.619	.071	.447	8.769***		
Durbin-Watson=1.612							

V. 논의

어린 시절 스포츠 경험은 정서적, 인지적, 도덕적 측면에서 신체적 발달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Horn, 2004; Ewing & Seefeldt, 1996). 개인의 스포츠 가치와 태도는 행동을 반영하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스포츠 가치와 태도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소년 스포츠 참여자의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Lee 등(2008)이 개발한 스포츠 가치, 태도 질문지(YSVQ-2)가 국내 상황에서의 사용이 적합한지 타당도를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를 통해 논의하였다.

1. 스포츠 가치와 태도 척도의 보편성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스포츠 상황에서 개발된 스포츠 가치와 태도 척도가 국내에서 적합하게 활용 가능한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척도의 타당화를 검증한 결과, 스포츠 가치 척도의 3요인 9항목과 스포츠 태도 척도의 4요인 12항목 모두 국내 유소년에게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 가치와 태도를 구성하는 구인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변인과의 준거 및 예측 타당도도 입증되었다. 즉, 스포츠 가치가 스포츠 태도와 스포츠 우정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덕성 가치는 몰입과 규칙준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

고, 유능성 가치 또한 몰입과 규칙준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위 가치는 부정행위와 게임스맨십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e 등(2008)은 지도자, 교사, 부모와 같은 주요타자들이 참여자들의 스포츠 경험을 높이기 위해 지위 가치보다 도덕성과 유능성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 가치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도덕성, 유능성 가치와 몰입과 규칙준수 태도를 보면, 하나의 가치는 두 개 이상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의 태도가 두 개 이상의 가치로 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okeach, 1973).

스포츠 가치가 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면, 도덕성 가치는 자아존중감, 의리/친밀감, 공통점과 갈등 해결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지위 가치는 의리/친밀감, 공통점 그리고 갈등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 가치와 태도의 측정 도구가 국내 스포츠 환경에서 사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포츠 환경의 실제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점은 청소년 스포츠 참여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료와 친구는 상호 간의 긍정적인 친구 관계와 우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위 가치보다 도덕성과 유능성 가치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의 결과는 국내 스포츠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행동 방향을 안내하는 가치와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치와 태도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상황에서 동기적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임을 인지하며 국내의 스포츠 환경에서 참여자들이 가지는 가치와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몇몇 연구자들은 가치와 태도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창훈(2005) 스포츠 가치의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해 가치 개념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임재영

(2010)은 유소년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가치와 태도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진행하였고, 송춘현(2011)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의 Lee 등(2008)의 스포츠 가치, 태도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측정 도구의 타당화 측면에서, Benson(1998)은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사용한 척도를 타당화 하는 것보다 검사점수의 해석을 타당화 하는 작업이다. 둘째, 타당도는 유무의 문제가 아닌 정도의 문제이다. 즉, 한 척도는 단독 연구만으로 타당화 작업을 거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요인분석 방법이 아닌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면적인 타당도를 확인하기보다는 척도 자체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타당도와 적합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해 기존의 스포츠 가치 척도와 스포츠 태도 척도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검증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므로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참여자들의 가치와 태도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여 스포츠 경험의 질적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2. 상황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스포츠 가치와 태도에 미치는 효과

동기 분위기라는 환경적 특성과 가치, 태도 그리고 우정과도 같은 개인적 특성 간에 관계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많은 선행연구(양일구, 오상훈, 2019; 안현석, 2018; 임용택, 유정인, 2010; Kipp, Bolter, 2020; Yaaribi & Kavussanu, 2018)는 주요타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수직적인 입장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수평적인 관점에서의 환경적 그리고 개인적 특성 파악에 중점을 둔 본 연구는 최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연구(Vazou, Ntoumanis, Duda, 2005; 이예승 등, 2014; 천승현 등, 2020)와 동일한 맥락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주요타자에 의해 형성되는 동기 분위기와 스포츠 참여자의 가치, 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 목적에 따라 동료에 의해 형성되는 동기 분위기가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태도뿐만 아니라 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또래 동기 분위기와 스포츠 가치, 태도와 스포츠 우정 간의 관계를 봤을 때,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는 대부분, 도덕성, 유능성, 지위 가치, 그리고 친사회적 태도(몰입, 규칙준수)와 긍정적 우정(자아존중감, 의리/친밀감, 공통점, 즐거운 놀이, 갈등 해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는 지위 가치, 친사회적 태도(규칙준수), 반사회적 태도(부정행위, 게임스맨십)와 긍정적 우정(자아존중감, 의리/친밀감, 공통점)과 부정적 우정(갈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 결과에서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동료에 의해 형성되는 과제 중심과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는 지위 가치를 동시에 예측하지만,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는 도덕성과 유능성도 함께 예측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지위 가치가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로 형성되었을 때 스포츠 지위가 체육 시간에 단체 활동을 통한 지위는 친구들 간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던 Brock(2009)의 연구결과처럼 긍정적인 가치 표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동기 분위기가 자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을 때 도덕성과 유능성 가치가 배제되고 지위 가치 만이 표현 된다면 부정적인 스포츠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료에 의해 형성되는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가 친사회적 스포츠 태도,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가 반사회적 태도를 예측한다는 결과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숙달 분위기는 친사회적 행동, 경쟁 분위기는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김선욱, 양명환, 2015). 또한, 동료에 의해 형성되는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가 도덕성 가치와 친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숙달 분위기가 도덕성과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하는 스포츠 인성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임수연, 2020).

또래 동기 분위기는 긍정적 우정과 부정적 우정을 동시에 예측하였다. 친구 관계 또는 또래 수용과 동기 분위기와 같은 환경적 특성 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수행된 천승현 등(2020)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 환경에서 또래들에 의한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는 긍정적 우정과 내적 동기를 예측하였으며,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는 부정적 우정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우정과 다른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Gauze, Bukowski, Aquan-Assee, Sippola(1996)은 친구 간의 우정 관계가 좋을수록 심리적 참살이 수준이 높고, 우정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참살이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고, 손승범 등(2019)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환경에서 형성되

는 우정은 스포츠 열정과 자신감을 촉진 시킨다고 보고하였다. Parker와 Asher(1993)는 친구 간의 관계악화는 외로움으로 이어진다고도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스포츠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여자들 간에 형성되는 우정은 그들의 스포츠 경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나타낸다.

스포츠 현장 또한 두 명 이상이 적지 않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사회적인 요소와 함께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훈련 상황, 경기 상황 또는 그 밖에서 일어나는 환경에서 동기 분위기 형성에 따른 다른 인식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스포츠 현장에서도 주요타자들은 동료와 타인을 경쟁자로 여기도록 하며 경쟁과 승리를 강조하는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를 형성하기보단 비교의 준거를 본인에게 두며 개인의 향상과 숙달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스포츠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정서 및 행동을 유도하여 건강한 스포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은 최종적인 결론을 요약,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발전적인 제언을 하였다.

1. 결론

이 연구는 먼저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스포츠 참여자의 스포츠 가치, 태도를 측정하여 기존의 측정 도구를 타당화 하였으며, 이어서 이들의 또래 동기 분위기, 스포츠 가치, 태도와 스포츠 우정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스포츠 가치와 스포츠 태도 척도가 국내 사용에 적합한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스포츠 가치 3요인 9항목, 스포츠 태도 4요인 12항목으로 변화없이 측정 도구가 그대로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또래 동기 분위기와 스포츠 가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가 가치 3요인 모두를 예측하였고,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와는 오직 지위 가치만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래 동기 분위기와 스포츠 태도와의 관계에서,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는 몰입과 규칙준수와 같은 친사회적 태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는 부정행위와 게임스맨십과 같은 반사회적 태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또래 동기 분위기와 스포츠 우정과의 관계에서, 과제 중심 동기 분위기는 자아존중감, 의리/친밀감, 공통점, 즐거운 놀이, 갈등 해결과 같은 긍정적 우정을 잘 예측하였고, 자아 중심 동기 분위기는 갈등과 같은 부정적 우정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의리/친밀감과 공통점의 긍정적 우정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선, 스포츠 가치와 태도의 기존 척도를 번안하여 국내 사용에 적합한지 타당화를 검증하고, 이어서 다른 환경적, 개인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포츠 환경에서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타자들에게 교육자료로 제공됨에 있어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후속 연구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한 종목의 유소년 스포츠 참여자들이 가지는 또래 동기 분위기, 스포츠 가치, 태도와 스포츠 우정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기에, 더 많은 다양한 종목, 연령대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사회학, 교육학, 경영학, 심리학에서 많이 이루어지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Braithwaite & Scott, 1991). 그러므로 스포츠 분야에서도 가치와 태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스포츠 환경에서 그들의 우정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정서와 성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명구, 임태희, 장창용. (2018). 케어링 및 동기 분위기는 태권도 선수들의 도덕행동을 예측하는가?. **국기원태권도연구**, 9(1), 77-93.
- 구창모. (1991). 체육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3-168.
- 김병준, & 오수학. (2004). **체육학 연구방법**. 서울: 무지개사.
- 김선옥, 양명환. (2015). 운동선수들의 동기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17(4), 25-35.
- 김성일. (2014). 유소년 축구선수들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또래집단 동기분위기 및 사회성숙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3(6), 975-989.
- 김은희. (2010). 무용수업에서 지각된 동기 분위기와 내적동기 및 연습참여의도간의 인과모형검증. **한국체육학회지**, 49(1), 351-364.
- 박중길. (2009). 대학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와 동기분위기지각이 스포츠퍼센십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2), 81-97.
- 성창훈. (2005). 청소년 스포츠 참가자의 스포츠 가치체계 및 그 구조.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6(3), 83-99.
- 손승범, 박인혜, 김옥현. (2019). 스포츠클럽활동 참가 여중생들의 스포츠우정, 스포츠열정, 스포츠자신감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1), 111-123.
- 송춘현. (2011). 초등학생의 스포츠 가치에 따른 성취성향이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7(1), 73-84..
- 심태영, 박기용. (2014).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스포츠클럽활동이 스포츠우

- 정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자연과학**, 53(3), 819-830.
- 안현석. (2018). 배드민턴 선수들이 인식한 동기분위기 자기결정동기와 정신력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321-334.
- 양일구, 오상훈. (2019). 중· 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동기분위기, 지각된 유능감, 성취목표성향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8(4), 401-414.
- 유진, 허정훈. (2001). 체육 성취목표지향성과 동기분위기지각이 내적동기와 운동수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1), 109-123.
- 이양주, & 오승현. (2012). 고등학교 볼링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 자신감과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14(1), 35-45.
- 이예승, 박진훈, 송용관, 이철. (2014). 코치의 자율성지지, 동료의 또래동기분위기와 운동선수들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1), 237-248.
- 이철, 천승현, 송용관. (2011).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의 또래동기분위가 내적동기와 신체활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0(6), 223-234.
- 임수연, 민솔비, 김용은, 김준. (2020).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중학생의 케어링분위기와 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 및 스포츠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5(1), 187-200.
- 임용택, 유정인. (2010). 수상 스포츠 동호인들의 운동만족과 동기분위기 간 관계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2(2), 1491-1501.
- 임재영. (2010). 초등학교 아동의 태권도 참여가 운동 가치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스포츠재활과학대학원.
- 정영린. (1996). 대학생의 사회계층적 배경과 스포츠 가치관의 관계. **한국**

스포츠사회학회지, 5, 73-84.

정청희, 김병준. (1999). **스포츠심리학의 이해**. 서울: 금광.

천승현, 김지현, 유경은, 김승재, & 송용관. (2017). 체육교사와 동료들에 의해 조성된 동기분위기가 학습자의 동기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2(1), 53-70.

천승현, 송용관. (2011). 스포츠우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2(4), 113-126.

천승현, 송용관. (2011). 한국형 유소년 스포츠 또래집단 동기분위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2(1), 243-259.

천승현, 임창하, 유경은, 주우영, 송용관. (2020). 신체활동에 참가하는 유소년들의 또래동기분위기, 스포츠우정과 내적동기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5(2), 245-259.

천은영. (2015). 학교스포츠클럽 팀분위기와 청소년의 스포츠우정 및 비행행동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4(3), 375-388.

최영준. (2020). 태권도 선수의 또래집단 동기분위기와 집단효능감 및 운동수행능력의 관계. **스포츠사이언스**, 37(2), 313-322.

허정훈, 설정덕. (2011).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동기분위기, 재미 및 운동몰입 간의 인과관계 검증: 재미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2(4), 69-82.

Al-Yaaribi, A., & Kavussanu, M. (2018). Consequences of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s in adolescent male soccer players: The moderating role of motivational climat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37, 91-99.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Ames, C. (1984). Achievement attributions and self-instructions

- under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goal structur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3), 478.
- Ames, C. (1992). Achievement goals and classroom motivational climate. In J. Meece & D. Schunk (Eds.), *Students' perceptions in the classroom* (pp. 327-348).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61.
- Ames, C., & Archer, J. (1988). Achievement goals in the classroom: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3), 260.
- Barkoukis, V., Koidou, E., & Tsorbatzoudis, H. (2010). Effects of a motivational climate intervention on state anxiety, self-efficacy, and skill development in physical education. *European Journal of Sport Science*, 10(3), 167-177.
- Benson, J. (1998). Developing a strong program of construct validation: A test anxiety example.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17(1), 10-17.
- Berndt, T. J. (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Cambridge studies i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 346-36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ndt, T. J. (2002). Friendship quality and social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1), 7-10.

- Biddle, S., Wang, C. J., Kavussanu, M., & Spray, C. (2003). Correlate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in physical activity: 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Sport Science*, 3(5), 1-20.
- Braithwaite, V. A. & Scott, WA (1991). *Values*. JP Robinson, PR Shaver & LS Wrightsman.
- Brock, S. J., Rovegno, I., & Oliver, K. L. (2009). The influence of student status on student interactions and experiences during a sport education unit.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14(4), 355-375.
- Bukowski, W. M., Newcomb, A. F., & Hartup, W. W. (1996). Friendship and its significanc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troduction and comment.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1-15.
- Cauce, A. M. (1986). Social networks and social competence: Exploring the effects of early adolescent friendship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6), 607-628.
- Duda, J. L. (1989). Goal perspectives, participation and persistence in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 Duda, J. L., & Chi, L. (1989). The effect of task-and ego-involving conditions on perceived competence and causal attributions in basketball. *Communication to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pplied Sport Psychology*,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September.
- Dweck, C. S. (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ng learning.

- American psychologist*, 41(10), 1040.
- Elashoff, J. D., & Snow, R. E. (1971). *Pygmalion reconsidered*. Worthington, OH: Charles A. Jones.
- Engh, F. (2002). *Why Johnny hates sports*. Square One Publishers, Inc..
- Ewing, M. E., & Seefeldt, V. (1996). Patterns of participation and attrition in American agency-sponsored youth sports. *Children and youth in sport: A biopsychosocial perspective*, 31-45.
- Fishbein, M. and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 Addison-Wesley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uze, C., Bukowski, W. M., Aquan Assee, J., & Sippola, L. K. (1996). Interactions between family environment and friendship and associations with self perceived well being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7(5), 2201-2216.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Vol. 5, No. 3, pp. 207-219).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rtup, W. W. (1995). The three faces of friend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4), 569-574.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 Hartup, W. W., & Stevens, N. (1999). Friendships and adaptation across the life 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8(3), 76-79.
- Hogue, C. M., Fry, M. D., & Fry, A. C. (2017). The differential impact of motivational climate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stress respons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30, 118-127.
- Horn, T. S. (2004).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Self-Percep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M. R. Weiss (Ed.), *Developmental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A lifespan perspective* (p. 101-143). Fitness Information Technology.
- Horn, T. S., & Weiss, M. R. (1991). A 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lf-ability judgments in the physical domain. *Pediatric Exercise Science*, 3(4), 310-326.
- Jõesaar, H., Hein, V., & Hagger, M. S. (2011). Peer influence on young athletes' need satisfaction, intrinsic motivation and persistence in sport: A 12-month prospective stud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2(5), 500-508.
- Katz, D. (1960).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2), 163-204.
- Keegan, R. J., Harwood, C. G., Spray, C. M., & Lavallee, D. E. (2009). A qualitative investigation exploring the motivational climate in early career sports participants: Coach, parent and peer influences on sport motivatio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3), 361-372.

- Keegan, R., Spray, C., Harwood, C., & Lavalley, D. (2010). The motivational atmosphere in youth sport: Coach, parent, and peer influences on motivation in specializing sport participant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2(1)*, 87-105.
- Kipp, L. E., & Bolter, N. D. (2020). Motivational climate, psychological needs, and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youth soccer: Comparisons by age group and competitive level.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51*, 101756.
- Lee, M. J., & Cockman, M. (1995). Values in children's sport: Spontaneously expressed values among young athlete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0(3-4)*, 337-350.
- Lee, M. J., Whitehead, J., & Balchin, N. (2000). The measurement of values in youth sport: Development of the Youth Sport Values Questionnair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2(4)*, 307-326
- Lee, M. J., Whitehead, J., Ntoumanis, N., & Hatzigeorgiadis, A. (2008). Relationships among values, achievement orientations, and attitudes in youth spor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0(5)*, 588-610.
- Lee, Y., & Oh, S. (2012). The Influence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Sport Self-confidence and Sport Commitment of High School Bowling Player. *International Journal of*

- Coaching Science*, 14(1), 35-45.
- Maehr, M. L., & Nicholls, J. G. (1980). Culture and achievement motivation: A second look. *Studi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2, 221-267.
- Morgan, K., & Carpenter, P. (2002). Effects of manipulating the motivational climate in physical education lessons.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8(3), 207-229.
- Newcomb, A. F., & Bagwell, C. L. (1995).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2), 306.
- Newcomb, A. F., & Bagwell, C. L. (1996). The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Cambridge studies i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 289-32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cholls, J. G. (1984). Achievement motivation: Conceptions of ability, subjective experience, task choice,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91(3), 328.
- Nicholls, J. G. (1989). *The competitive ethos and democratic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Ntoumanis, N., & Vazou, S. (2005). Peer motivational climate in youth sport: Measureme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7(4), 432-455.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
- Reinboth, M., & Duda, J. L. (2006).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need satisfaction and indices of well-being in team sports: A longitudinal perspectiv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7(3), 269-286.
- Roberts, G. C. (1992).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Conceptual constraints and convergence.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20, 199-215.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Free press.
- Smith, A. L. (2003). Peer relationships in physical activity contexts: A road less traveled in youth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research.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4(1), 25-39.
- Smith, A. L., Balaguer, I., & Duda, J. L. (2006). Goal orientation profile differences on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perceived peer relationships, and motivation-related responses of youth athletes. *Journal of Sports Sciences*, 24(12), 1315-1327.
- Smith, A. L., Ullrich-French, S., Walker, E., & Hurley, K. S. (2006). Peer relationship profiles and motivation in youth spor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8(3), 362-382.
- Smith, R. E., & Smoll, F. L. (2002). Youth sports as a behavior setting for psychosocial interventions. In J. L. Van Raalte & B. W. Brewer (Eds.), *Exploring sport and exercise*

- psychology* (p. 341–37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mith, R. E., Smoll, F. L., & Cumming, S. P. (2009). Motivational climate and changes in young athlete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Motivation and Emotion*, 33(2), 173–183.
- Vazou, S., Ntoumanis, N., & Duda, J. L. (2005). Peer motivational climate in youth sport: A qualitative inquir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6(5), 497–516.
- Weiss, M. R., & Chaumeton, N. (1992). Motivational orientations in sport In TS Horn (Ed.), *Advances in sport psychology* (pp. 61–99).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Weiss, M. R., & Duncan, S. C.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competence and peer acceptance in the context of children's sports participation.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4(2).
- Weiss, M. R., & Ferrer-Caja, E. (2002). Motivational orientations and sport behavior. In T. S. Horn (Ed.), *Advances in sport psychology* (p. 101–170). Human Kinetics.
- Weiss, M. R., & Petlichkoff, L. M. (1989). Children's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and withdrawal from sport: Identifying the missing links. *Pediatric Exercise Science*, 1(3), 195–211.
- Weiss, M. R., & Smith, A. L. (1999). Quality of youth sport friendships: Measureme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1(2), 145–166.
- Weiss, M. R., Smith, A. L., & Theeboom, M. (1996). "That's what friends are for": Children's and teenagers' perceptions of peer relationships in the sport domain.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8(4), 347-379.

White, S. A. (1996). Goal orientation and perceptions of the motivational climate initiated by parents. *Pediatric Exercise Science*, 8(2), 122-129.



부록 1. 설문지

학생을 위한 설문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체육수업 활동 및 가치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연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따라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분석되고,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되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연구원: 부경대학교 체육학과 석사과정 정건영
지도교수: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송용관

■ 우리 팀 친구에 대한 나의 생각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① 내 친구들은 운동기술이 향상되도록 서로 돕는다.	1	2	3	4	5	6	7
② 우리 팀 친구들은 기술향상을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1	2	3	4	5	6	7
③ 우리 팀 친구들은 부족한 부분(기술)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1	2	3	4	5	6	7
④ 우리 팀 친구들은 팀과 우리(개인)의 발전을 위해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1	2	3	4	5	6	7
⑤ 우리 팀 친구들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긴다.	1	2	3	4	5	6	7
⑥ 우리 팀 친구들은 나를 존중해 준다(무시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⑦ 우리 팀 친구들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한다.	1	2	3	4	5	6	7
⑧ 우리 팀 친구들은 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2	3	4	5	6	7
⑨ 우리 팀 친구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를 칭찬한다.	1	2	3	4	5	6	7
⑩ 우리 팀 친구들은 팀원이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좋아한다.	1	2	3	4	5	6	7
⑪ 우리 팀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	2	3	4	5	6	7

■ 우리 팀 친구에 대한 나의 생각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⑫ 우리 팀 친구들은 실수한 친구가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도와)해준다.	1	2	3	4	5	6	7
⑬ 우리 팀 친구들은 내가 우리 팀 친구들 보다 잘해야 나를 인정해준다.	1	2	3	4	5	6	7
⑭ 우리 팀 친구들은 운동 잘하는 친구에게만 관심을 갖는다.	1	2	3	4	5	6	7
⑮ 우리 팀 친구들은 팀 내 다른 친구들 보다 무조건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⑯ 우리 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보다 더 잘할 때 기뻐한다.	1	2	3	4	5	6	7
⑰ 우리 팀 친구들은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1	2	3	4	5	6	7
⑱ 우리 팀 친구들은 친구에게 좌절감을 느끼는 말을 한다.	1	2	3	4	5	6	7
⑲ 우리 팀 친구들은 실수했을 때 원망하거나 비난한다.	1	2	3	4	5	6	7
⑳ 우리 팀 친구들은 경기에서 지면 불만을 표현한다.	1	2	3	4	5	6	7
㉑ 우리 팀 친구들은 친구가 실수하면 비웃는다.	1	2	3	4	5	6	7

■ 스포츠 우정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① 내 친구는 나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	1	2	3	4	5	6	7
② 내 친구와 나는 잘 한 것에 대해 서로 칭찬한다.	1	2	3	4	5	6	7
③ 내가 실수하면 내 친구는 나를 격려한다.	1	2	3	4	5	6	7
④ 내 친구는 운동을 하는 동안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1	2	3	4	5	6	7
⑤ 내 친구와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서로 다 이야기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⑥ 내 친구와 나는 운동을 할 때 서로를 지지해준다.	1	2	3	4	5	6	7
⑦ 내 친구는 관심을 갖고 나를 살피는다.	1	2	3	4	5	6	7
⑧ 내 친구와 나는 서로에게 비밀을 말한다.	1	2	3	4	5	6	7

■ 스포츠 우정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⑨ 내 친구와 나는 공통 흥미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⑩ 내 친구와 나는 비슷한 것을 한다.	1	2	3	4	5	6	7
⑪ 내 친구와 나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⑫ 내 친구와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6	7
⑬ 내 친구와 나는 재미있는 것을 한다.	1	2	3	4	5	6	7
⑭ 내 친구와 나는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6	7
⑮ 내 친구와 나는 같이 잘 어울린다.	1	2	3	4	5	6	7
⑯ 내 친구와 나는 같이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6	7
⑰ 내 친구와 나는 다툼 후에 화해점을 잘 찾아낸다(쉽게 화해한다).	1	2	3	4	5	6	7
⑱ 내 친구와 나는 의견이 다를 때 해답을 찾으려 노력한다.	1	2	3	4	5	6	7
⑲ 우리가 언쟁을 할 때, 내 친구와 나는 해결책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1	2	3	4	5	6	7
⑳ 내 친구와 나는 서로에게 자주 화를 낸다.	1	2	3	4	5	6	7
㉑ 내 친구와 나는(자주) 싸운다.	1	2	3	4	5	6	7
㉒ 내 친구와 나는 언쟁(말싸움)을 한다.	1	2	3	4	5	6	7

■ 스포츠 가치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도덕성						
① 나는 정정당당하게 경기와 연습에 임한다.	1	2	3	4	5	
② 나는 좋은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③ 나는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준다.	1	2	3	4	5	
유능성						
④ 나는 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⑤ 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 스포츠 가치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⑥ 나는 더 나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지위					
⑦ 나는 팀의 리더이다.	1	2	3	4	5
⑧ 나는 다른 친구들의 비해 뛰어나다.	1	2	3	4	5
⑨ 나는 인기가 있다.	1	2	3	4	5
몰입					
⑩ 나는 매일 열심히 연습한다.	1	2	3	4	5
⑪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⑫ 나는 실수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규칙준수					
⑬ 나는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방과 악수를 나눈다.	1	2	3	4	5
⑭ 나는 상대방의 좋은 플레이를 축하해준다.	1	2	3	4	5
⑮ 나는 패배한 후에도 상대방을 축하해준다.	1	2	3	4	5
부정행위					
⑯ 나는 이길 수 있다면 부정행위를 한다.	1	2	3	4	5
⑰ 나는 들리지 않게 부정행위를 한다.	1	2	3	4	5
⑱ 나는 가끔 부정행위를 한다.	1	2	3	4	5
게임스맨십					
⑲ 상대방 선수를 화나게 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⑳ 나는 가끔 상대방을 박살내려고 한다.	1	2	3	4	5
㉑ 다른 친구가 잘하는 것이 싫을 때 나는 그 친구를 방해한다.	1	2	3	4	5